

여수시, 72년 만에 '민·관·군·경 하나된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 인원 100명으로 최소화 오는 19일 중앙동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개최

여수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연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지속되어 왔으나,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대표가 참

석하며 화해와 상생의 의지를 밝힌 이후, 올해는 순직경찰 유족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최초로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을 열게 된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지난해 500여 명이던 참석자를 100명으로 줄여 참석인원을 최소화 했다. 차단봉을 설치하고 방역 스테이션을 마련해 참

석자 전원 발열 체크와 좌석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행사는 4대 종교단체 대표의 추모와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영상 상영, 추모공연,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법 사이렌을 10시 정각에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여순사건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하나된 합동추념식을 열게 된 만큼 70여년의 세월과 시대적 그림자에 가려졌던 아픈 과

거가 빠른 시일 내 진실을 되찾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년부터 매년 19일 오전에 민간인 유족회와, 군·경 대표가 참석하는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는 지난해 처음 동부 6개 시·군 민간인 유족회 중심의 합동 위령제를 시작했으며, 두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여수를 비롯한 6개 시·군 유족회장이 참석해 행사 일



지난해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내빈들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하고 있다.

정은 충분히 사전 논의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2020년 공공비축미곡 7486톤' 수매 실시

고흥군수, 산물벼 수매현장 찾아 생산 농가 격려



고흥군은 최근 2020년산 산물벼 수매를 포두면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동강면 고흥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총 7,486톤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위원

회에서 결정된 새청무와 새임미 2 품종으로 수매를 시작하였다. 농가 편의와 정부관리 양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 후 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하는 산물

벼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매입한다. 또 건조벼는 벼 수확상황을 고려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읍면별·창고별로 수매 일자를 지정해 전량 포대벼(800kg톤백, 40kg포대) 단위로 수매한다. 현장을 찾은 송기근 군수는 "올해는 태풍과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진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격려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순천 모링가조합,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선정



순천의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 신규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사업비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이다. 모링가는 세계 3대 슈퍼푸드로 당, 노, 고혈압, 변비개선 및 면역력 강화 등 세계적으로 연 10%로씩 성장하고 있으며 순천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모링가는 타 지역에 비해 미네랄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순천시 산림특화작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농촌융복합(6차산업)인증,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기술이전MOU 체결 등 꾸준한 제품개발과 대리점 7곳, 백화점10곳, 온라인 9곳 등 꾸준한 판매망 확대와 매출성장을 보이고 있다. 모링가 친환경경매단지 조성, 제품 가공, 포장, 신제품개발, 홍보, 마케팅을 통한 집단조직, 생산원가 절감 및 제품 안정적 공급체계구축 등을 통한 모링가 브랜드화 및 고부가가치에 역점을 두고 순천시 외서면 쌍물리 일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공단지 100% 분양...80억 원 투입 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기대감 상승

보성군은 최근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조성면 일대에 80억 원을 투입해 5만 평방미터 규모의 제2조성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농공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한 보성군은 신규 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유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산업시설 용지, 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제2조성농공단지는 조성

면 귀산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르면 내년 초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제2조성농공단지는 보성~순천 간 국도 2호선, 경전선 등에 인접해 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를 비롯한 호남고속도로 진출이 용이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 조성농공단지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만큼 단지 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제2조성농공단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보성군은 유치업종 간 연관성을 고려해 단지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제2조성농공단지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올해의 봉사왕' 선발

16만 귀감 될 수상후보자 오는 16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2020년 올해의 봉사왕' 수상후보자를 오는 16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의 봉사왕은 지난해 처음 선정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로 우수봉사자 1명을 '올해의 봉사왕'으로 선정하여 11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10월 7일) 기준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며, 자원봉사 경력이 5년 이상이고 1365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상 봉사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자로 공적기간 및 활동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전산 확인할 예정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기관·단체장, 20인 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주민복지과 내 자원봉사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광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 요건심사 후 심사위원회에

서 2차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수상대상자는 11월 중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 시 상패를 수여받게 된다. 추천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공고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자원봉사센터(☎ 061-797-2779, 27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호 주민복지과장은 "올해의 봉사왕 선정으로 우리 시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6만 시민의 귀감이 되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